

社 說

경기북도 신설 추진 환영

지난 4일 의정부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가진 경기북부발전 기획단이 기자회견을 갖고 가능한 2006년 지방선거 전에 경기북도 신설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방문도 있으나 순환규 경기도지사 경기북도 신설 반대입장을 밝히 이 방법을 택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경기북부지역 주민들 모두는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 아울러 하성관 행정자치부 장관도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경기북도가 신설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발언을 해 2006년도에는 경기북도도지사를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이 직접 선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경기북부발전기획단장은 "경기북도 신설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라며 "정파와 특정 단체에 관계없이 경기북도 신설을 지지하는 세력과 연대하고 상의해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탈북주민의 정착 도와주자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택지개발지구 건설한 주공아파트에는 최근 탈북 주민들이 입주해 생활하고 있다. 이들은 일요일이면 교회를 찾아가 그동안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살아온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교회예배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함께 한 교인들과 갈릴증학교에서 함께 밥을 흘리며 축구 경기를 가진 이들은 서로를 알아가기에 충분했다.

정치활동 동향



이철우 국회의원은 4일 의정부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경기북부발전기획단의 정성호 단장을 비롯 경기북부의원 4명과 기획단 4차 정례회의에 참석해 경기북도신설 추진에 관해 논의하는 등 구체적인 추진을 결의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8일 중국 화이베이시 방문단을 맞아 환담하는 자리에서 양 도시간 우호증진을 위한 활발한 교류방안을 밝히고, 스포츠공연을 일환으로 포천시립민속예술단·생활체육회 축구단의 방문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최대중 포천시의회의장은 6일 포천종합체육관에서 개최된 제2회 포천시 체육회장기 제2회 민선대회에 참석해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한마당 축제를 축하해주고 참가 선수들과 체육회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오병익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은 8일 강원도 화천에서 개최된 강원도의회와 경기도의회의원들의 간담회에 참석해 경기지역 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작성하고 정경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상단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난 8일 경기도 교육위원회 의원 12명과 함께 부천교육청을 방문 업무보고를 받고 부천 교육청 전반에 관한 발전방향 및 당면 현안, 도교육청반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이천복 포천시의회의원은 지난달 31일 지역 주민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1회 선단동민 화합의 한마당 대축제에 참석해 모든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행사로 거듭나길 당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병옥 포천시의회의원은 7일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영종면 영평초등학교 총동문체육대회에 참석해 영평초 동문들과 한마을 체육행사도 친목을 다지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안전사고 없는 행사가 진행되길 당부했다.



이강밀 포천시의회의원은 지난 2일 개최된 지원봉사단체 연합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해 각 단체들의 실무자 등을 위로하고 이번 대회를 통해 봉사자간의 화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강태선 포천시의회의원은 지난 3일 포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1회 포천시 체육회장기 게이트볼대회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위로, 대회에 참가한 선수단의 선전과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 입상자들을 시상했다.

포천시의회 金榮大 운영위원장에게 듣는다

“화합과 단결로 멋진 포천시의회상 구현할 터”

“해외연수와 국내연수 기회 확대해야” 강조

포천시의회는 의장 부의장, 상임 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상임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산업도시위원회로 나뉘어 있다.

운영위원회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의회운영에관한사항,회의규칙및의결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정한 사항 등이 주요업무로 돼 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자치행정(자치행정과, 주민자치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과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 등 10개과 소관에 관한 사항을 주요업무로 한다.

산업도시위원회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산업도시(지역산업과, 농축산과, 산림복지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등 9개과 소관에 관한 사항을 주요업무로 한다.

김영대(52,사진) 포천시의회 운영위원장은 내촌면 출신 2선 의원이며 내촌면 새마을지도자 연합회장, 내촌면 자연보호협의회장, 포천시 재향군인회 이사, 내촌면 방위협의회 위원, 내촌면 개발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포천시의회 운영 위원장으로서 가장 역점에 붙 사업에 대해 “포천시의회는 의원상 호간에 반목과 질시보다는 화합과 단결의 모습로 포천시정 감시역할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포천시의회 의원들의 보다 폭넓은 경험을 위해 해외연수는 물론 국내연수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도 노력을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운영위원장으로 포천시의회를 외부에 소개할 때는 “모두가 하나되어 열심히 노

력하는 의회”라고 하겠다고 한다.

특히 지난 의장단 선거 이후 후유증에 대해서는 “이미 다 해소됐다”고 밝혀 향후 포천시의회가 건강한 의회로 나가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했다.

포천시를 이끌어가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행정대상을 수상하는 등 괄목한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포천시장이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임을 강조하고 “신도시개발은 남양주시와 인접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내촌면에 신도시를 건설하면 소흘읍보다도 아파트 분양이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해 “조례의 제정, 의결권,



김영대 포천시의회 운영위원장

행정감사권, 청원수리권등 지방의회의 권한을 행사하여 효율적인 의회상 구현은 물론 수준 높은 정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회운영의 묘를 살려 그 어느 운영위원장 보다도 멋진 의회운영을 도모하겠다고 밝히는 김 위원장의 의지가 보다 멋진 포천시의회의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열린우리당 “京畿北道 신설 추진”

輿野 한 목소리, 경기도는 반대 입장

경기북부지역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이 경기북도 신설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경기도당도 경기북도를 찬성하는 입장 이어서 경기북도 신설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경기북부지역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단장 정성호 국회의원·동두천·양주은 지난 4일 의정부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능한 한 2006년 지방선거 전에 경기북도 신설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회견에는 경기북부지역 출신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문화상(의정부 갑), 정성호(동두천·양주), 강성중(의정부 을), 박기춘(남양주 을), 이철우(연천·포천), 최재성(남양주 갑) 의원 등 6명과 중앙

당 배기선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고양 지역 유시민, 한명숙, 최 성 의원과 구리 윤호중 의원은 국회 일정을 핑계로 참석하지 않았으나 지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 단장은 이날 회견문에서 “경기북도 신설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라며 “정파와 특정 단체에 관계없이 경기북도 신설을 지지하는 세력과 연대하고 상의해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단은 앞으로 당론 확정을 거쳐 이달 안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기획단은 기자회견에 앞서 제4차 정례회의를 열어 ▶중앙당 경기북도 신설 추진 특별위 구성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준비 ▶행자부내 경기북도 신설

추진기획단 구성 ▶홍보 및 서명 운동 전개 등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나라당 경기도당도 이날 “당내 입시기구로 있던 경기북부 발전 특별위원회를 정식기구로 격상하겠다”는 동참 성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김성식 경기도 정부부지사는 “분도는 경기도 경쟁력은 물론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으며 무엇이 경기도와 나라에 도움이 되는지 본질적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기존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경기북도 신설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주민투표를 거쳐 국회에서 의 법 제정을 통해 가능하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연수

설악산에서 2박3일간 예산안 심의방법 등

포천시의회(의장 최대중)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2박3일간 설악산에서 2004년도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연수를 가졌다.

이번 연수는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가 주관해 실시되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기법과 지방의회의 예산안심의 요령 등에 대해 집중 연수했다.

이번 연수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기법 강의는 행정사무감사·조사과정, 행정사무감사·조사준비 및 판단기준, 행정부문별 착안사항, 기초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등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연수가 진행됐다.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는 예산

안 심의를 위한 예비지식, 세입예산안의 심의방법, 세출예산안의 심의방법, 예산안 심의를 위한 기법과 전략, 중요한 내용과 2005년도에 달라지는 것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2005년도에 달라지는 것으로 예비비의 집행비는 일반회계 담보예산규모의 1.0%이상을 확보 하되, 그중 0.4%이상은 재해대책비 용도로만 사용하고 단 연도말이 도래하여 재해대책 경비소요의 발생가능성이 적고,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재정수요의 발생 및 결산을 위해 필요시에는 재해대책 등의 사업에 집행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시의회 임시회 개최

군사적장 피해대책 조사특별 위 조사활동 등

포천시의회(의장 최대중)는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10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는 군부대사적장피해대책특별위원회조사특위가 구성되어 사적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정전적 피해 및 경제적인 피해조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별위원회는 10월21일부터12월31일까지 관내 사적장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또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

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87억1천8백만원이 증가한 2,889억 4천5백만원의 심의 의결했으며,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등 4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폐회했다

다음 임시회는 시정질문 및 사업담당자와 그리고 군부대사적장 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으로 관련부대를 방문하여 피해대책 협의 및 피해 최소와 축구를 위한 10월부터 1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11회 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자/유/기/고



이 중 희

포천시선거관리위원 시인, 본지 자문위원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은 16대 국회와는 달리 새로운 정치 체제를 펼치려 하는 17대 국회까지 16대 국회와 똑같이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로 유세에 나서지 이렇게 땀 흘린 얼굴로 유세에 나섰겠습니까?

그러자 더글러스는 또 다시 링컨의 과거 행적을 다음과 같이 공격하게 시작했다.“유권자 여러분, 링컨씨는 과거에 식료품 가게를 경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는 법으로 식료품 가게에서는 절대로 술을 팔지 못하게 금했었는데 링컨씨는 법을 어기고 술을 팔았습니까. 이러한 사람이 상원의원이 되었다고 하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자 링컨은 등단하여 “친애하는 유권자 여러분, 지금 더글러스씨의 말은 하나도 거짓이

에서 마주쳤다. 그런데 처칠은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 그러자 노동당 당수가 매우 화를 내며 왜 나를 무시하느냐고 처칠에게 따졌다. 그러자 처칠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다. “당신 내일은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무엇이지지 규모가 큰 것이면 국유화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의 물건이 너무 커서 혹시나 당신께서 저의 물건을 보시면 저의 물건마저도 국유화한다고 할까 봐 차마 아는 척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저의 아내한테도 큰 일 아닙니까?”

그러자 노동당 당수는 박장대소를 터트렸고 그 후 여·야간의 쟁점이 되고 있는 각종 현안에 대해서 타협과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앞에서 사례로 든 링컨과 처칠의 유머가 지금 우리에게 매우 유치하게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총리의 말 몇 마디 때문에 여·야가 사생결단의 대결을 벌이면서 정국 중요한 민생 현안은 외면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단지 유치한 유머만은 아니다.

자칫하면 격렬할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일도 순간의 재치와 유머로 원만히 무마하면서 공존과 상호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선진 민주국가의 정치 지도자들의 사례는 오늘날 우리의 정치인들이 본받아야 할 사례인 것이다.

이런 유행어발로 우리와 마찬가지로 때로는 격렬한 여·야간의 대립을 겪으면서도 상호공존과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선진 민주국가들의 큰 자산 중의 하나인 것이다.

정치의 유행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때 우리 가게로 술을 가장 많이 사러 오신 분이 바로 여기 계신 더글러스씨라는 것도 거짓없는 사실입니다.”

이 명쾌한 한 마디에 장내는 우리같은 박수와 함께 웃음바다가 되었다. 선거 결과는 링컨이 당선되었다.

총리의 야당과 몇몇 언론을 비판하는 몇 마디가 여·야간의 정면 대결로 확대되고 있는 우리의 정치 현실과 비교해 볼 때 부러운 대목이라 할 것이다.

영국의 처칠 수상이 정계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영국의 보수당과 노동당은 제반 국가 정책에 있어서 지금 우리의 여·야간의 대립 못지 않게 격렬한 대립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런던 어느 날 처칠이 상대 당인 노동당 당수와 화상질

Publication information for Pocheon News (포천신문)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website.